

1. 2015 개정 교육과정

1) 문·이과 통합

- 학생들의 균형적인 발달과 유연하고 다양한 진로 선택을 위해 **문·이과를 통합**하였습니다.

2) 공통 과목 신설

- 모든 학생의 기초 소양 함양과 기초 학력 보장을 위해 **공통 과목***을 신설하였습니다. 특히 사회와 과학 교과는 '통합사회'와 '통합과학' 등의 핵심개념을 중심으로 한 융합과목을 도입했습니다.

※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통합사회, 통합과학, 과학탐구실험

3) 다양한 선택 과목 이수

- 학생들은 단순히 문과와 이과로 구분되어 수업을 듣는 것이 아니라 공통 과목 이수 후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 다양한 선택 과목(일반 선택, 진로 선택*)**을 이수하게 됩니다.

※ 일반 선택 과목: 교과별 학문의 기본 이해를 바탕으로 한 과목

진로 선택 과목: 교과 융합학습, 진로 안내학습, 교과별 심화학습, 실생활 체험학습 등이 가능한 과목

4) 교실 수업 개선

- 중복된 학습 내용이나 단편 지식 등을 교과별 핵심개념과 원리 중심으로 정선하여 감축하고, 학생의 발달 단계와 국제적 기준(Global standards)을 고려하여 성취기준 이수시기 이동, 학습 내용의 삭제·신설·통합 등을 통해 적절한 학습 수준을 제시함으로써 학습 부담이 줄고 교실 수업이 개선됩니다.

5) 국·수·영 비중 6단위 감축

- 기초 교과 영역 이수 단위를 교과 총 이수 단위의 50%를 넘지 못하게 하고, 기초 교과 영역에 한국사(6단위)를 포함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국어, 수학, 영어 비중이 2009 개정 교육과정보다 6단위 감축**되었습니다.

6) 과목의 이수

- 공통 과목은 모든 학생이 이수해야 하며, 공통 과목 이수 후 학생들은 자신의 진로 희망에 따라 선택 과목을 이수할 수 있습니다. **공통 과목은 증배없이 2단위 범위 안에서 감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습니다. 선택 과목의 기본 단위 수는 5단위이며, **일반 선택 과목은 2단위, 진로 선택 과목은 3단위 범위 안에서 증감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습니다.
- 학교에서는 교육과정 편성·운영 시 학생의 선택에 따라 **진로 선택 과목을 3과목 이상** 이수하도록 해야 합니다.
- 일반 고등학교와 자율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은 보통 교과 중심으로 편성하되, 필요에 따라 전문 교과의 과목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 **한국사는 6단위 이상** 이수하되 **2개 학기 이상** 편성하고, **과학탐구실험은 2단위 편성·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과학 계열, 체육 계열, 예술 계열 고등학교의 경우 학교 실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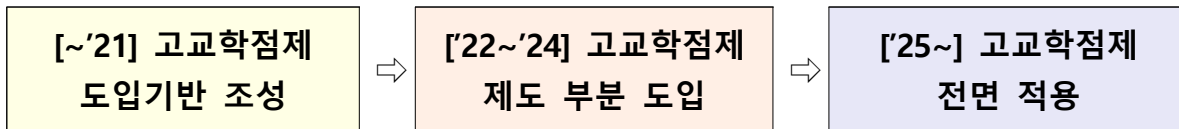
2. 공교육 정상화법

공교육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공교육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p>1. 공교육정상화법: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학습 규제에 관한 특별법 (2014.3.11제정, 2014.9.13 시행)</p> <p>2. 학교가 단위학교 교육과정을</p> <p>① 국가 및 시·도 수준의 교육과정에 앞서서 편성하거나,</p> <p>② 학교교육과정에 앞서서 제공하는 교육 일반을 선행교육 이라 함.(법2조)</p>	<p>3. 학습자가 국가, 시·도 및 학교교육 과정에 앞서서 하는 학습을 선행학습 이라 함.(법2조)</p> <p>4. 학교가 각종 교내 시험에서 학생이 배운 학교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하는 것을 선행출제라 함.</p>
공교육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공교육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p>5. 중·고등학교 및 대학이 입학전형에서 해당 학교 입학단계 이전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하는 것을 선행입시라 함.</p> <p>6. 공교육정상화법의 목적(법1조)</p> <p>① 초·중·고교 교육과정의 정상적인 운영</p> <p>② 학교의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 행위 규제</p> <p>③ 교육기본법이 정한 교육 목적 달성</p> <p>④ 학생의 건강한 심신 발달 도모</p>	<p>7. 과도한 선행학습의 폐해</p> <p>① 다른 학습자의 학습권과 교사의 수업권 침해</p> <p>② 사고력과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의 저하</p> <p>③ 남보다 앞서 나가기 위한 지나친 속도 경쟁</p> <p>④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 증대</p>
공교육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공교육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p>8. 책무성(법5~7조)</p> <p>① 학생이 편성된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용 도서의 내용을 충실히 익힐 수 있도록 하여야 함(학교장)</p> <p>② 해당 학교에서 선행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하도록 지도·감독(학교장)</p> <p>③ 학부모·학생·교원에게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학교장)</p> <p>④ 선행 교육·학습 예방에 관한 계획 수립·시행(학교장)</p> <p>⑤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하여 학생의 선행학습을 전제로 수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교원)</p> <p>⑥ 자녀가 학교의 교육과정에 따른 학교 수업 및 각종 활동에 성실히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학교의 정책에 협조(학부모)</p>	<p>9.공교육정상화법 규제대상(법8~10조)</p> <p>① 선행교육</p> <p>② 선행학습 유발 행위</p> <p>③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 또는 선전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 교습자)</p> <p>④ 대학 입학전형에서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넘어서는 문제 출제</p>
공교육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공교육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p>10. 규제대상의 예외(제8조)</p> <p>① 학교의 휴업일 중 실시하는 방과후 과정</p> <p>② 농산어촌 지역 학교의 방과후 과정</p> <p>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 저소득층 밀집 학교의 방과후 학교 과정</p>	<p>11.선행학습 유발 행위 금지(시행령 3조)</p> <p>① 입학이 예정된 학생을 대상으로 입학 전에 해당 학교의 교육과정을 사실상 운영하는 것</p> <p>② 입학이 예정된 학생을 대상으로 해당 학교 입학 단계 이전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하는 것</p>

I. 추진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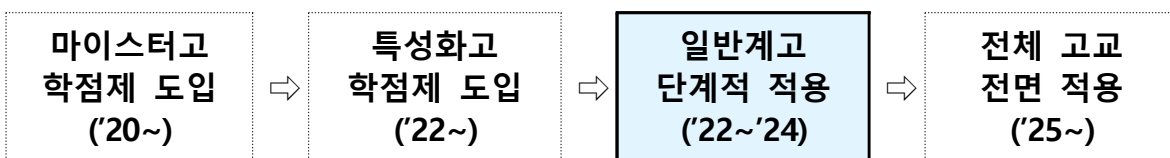
- (학점제 추진 로드맵) 고교학점제로의 점진적 변화 및 현장 안착을 위해 단계적 제도 도입을 거쳐 2025년 전면 적용하는 일정 제시('18.8/교육부)
- 고교학점제의 여러 제도적 요소를 단계적으로 적용하여 변화에 대한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학교의 안정적 학사 운영 지원

< 고교학점제 도입 로드맵('18.8, 고교교육 혁신 방향) >



- (학점제 추진 상황) 마이스터고('20~), 특성화고('22~)에 이어 일반계고 및 특목고 등을 대상*으로 고교학점제의 요소를 단계적으로 적용할 예정

* 일반고, 자율고, 특목고(마이스터고 제외) 등



II. 추진방향

☞ 기반 정비를 거쳐 '22년부터 단계적으로 고교학점제로 이행하여, '25년 학생 맞춤형 교육체제의 완전한 안착 도모

※ 성취평가, 미이수 등 고교학점제의 핵심 요소는 당초 일정대로 '25년 도입

- ('22년) 법령 등 지침 정비, 교원 역량 강화, 시도 및 학교 단위 학점제 추진체제 마련 등 고교학점제 운영체제로 전환
- ('23~'24년) 수업량 적정화(204→192학점), 공통과목 최소 성취수준 보장 지도 등 고교학점제 요소를 단계적으로 적용 * 공통과목 : 국어, 수학, 영어

Ⅲ. 일반계고 고교학점제 단계적 이행 로드맵

	기 반 마 련	운 영 체 제 전 환	제 도 의 단 계 적 적 용		고 교 학 점 제 전 면 적 용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수 업 량 기 준	단 위	단 위 (특 성 화 고: 학 점)	학 점		학 점
총 이 수 학 점	1~3학 년 204단 위	1학 년 204단 위	1학 년 192학 점	1학 년 192학 점	1학 년 192학 점
		2학 년 204단 위	2학 년 204단 위	2학 년 192학 점	2학 년 192학 점
		3학 년 204단 위	3학 년 204단 위	3학 년 204단 위	3학 년 192학 점
연 구·선 도학 교 비 중*	55.9%	84%	95%	100%	고 교 학 점 제 안 정 적 운 영
책 임 교 육	준 거 개 발	교 원 연 수 시 도·학 교 준 비	공 통과 목(국 어, 수 학, 영 어) 최 소 성 취수 준 보 장 지 도		전 과 목 미이 수제 도입
평 가 제 도	진 로선 택과 목 성 취평 가제 (공 통, 일 반선 택 9 등급 병기)				모 든 선 택과 목 성 취평 가제 (공 통과 목 9등 급 병 기)

Ⅳ. 고등학교 학사 운영체제의 변화

	현 재	단 계 적 이 행		전 면 적 용
	2021년	2022년	2023~24년	2025년~
수 업 량 기 준	단 위	학 점		학 점
1학 점 수 업 량	50분 17(16+1)회	50분 17(16+1 [*])회		50분 16회 [*]
총 이 수 학 점 (이 수 시 간)	204단 위 (2,890시 간)	192학 점 (2,720시 간)		192학 점 (2,560시 간)
교 과·창 체 비 중	교 과 180 창 체 24	교 과 174 창 체 18		교 과 174 창 체 18

* 교과 수업횟수는 감축되나, 현행 수업일수(190일 이상,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5조)는 유지하여 학교가 교과 융
합 수업, 미이수 보충지도 등 다양한 프로그램 자율적 운영

V. 2015 개정 교육과정 VS 2022 개정 교육과정

‘현행 교육과정 vs 2022 개정 교육과정

구분	(현행) 2015 개정 교육과정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주요사항
비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배움을 즐기는 행복 교육 바른 인성을 갖춘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더 나은 미래, 모두를 위한 교육 포용성과 창의성을 갖춘 주도적인 사람
교육적 인간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주적인 사람, 창의적인 사람, 교양 있는 사람, 더불어 사는 사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기주도적인 사람, 창의적인 사람, 교양 있는 사람, 더불어 사는 사람
핵심역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6대 핵심역량 신설 - 자기관리, 지식정보처리, 창의적 사고, 심미적 감성, 의사소통, 공동체 역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래 역량을 반영한 핵심역량 개선 - 자기관리, 지식정보처리, 창의적 사고, 심미적 감성, 협력적소통, 공동체 역량
교육과정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문학적 상상력, 과학기술 창조력을 두루 갖출 수 있도록 문이과 통합 지향 ☞ 독서 및 연극교육 활성화 학교교육과정 자율화 지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디지털 기초소양, 자기주도성, 지속가능성, 포용성과 시민성, 창의와 혁신 등 미래사회 요구 역량 지향 초등학교 학교 자율시간 신설·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초) 교과내용을 SW소양교육으로 전환 (중) 과학/기술가정/정보 교과 신설 (고) 심화선택 정보 과목 일반선택 전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모든 교과교육을 통한 디지털 기초소양 함양 (초) 실과 + 학교 자율시간을 통한 34시간 이상 편성 (중) 정보과+학교 자율시간을 통한 68시간 이상 편성 (고) 교과 신설, 다양한 진로 및 융합선택과목 신설(데이터과학, 소프트웨어와 생활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초등학교 공통교육과정(동일) 교과(군), 학년(군) / (고)교과영역 유지 교과(군)별 20% 증·감축 국제비교에 따른 교과별 학습수준 적정화 및 교과(군)별 성취기준 20% 감축 범교과학습주제 : 10개(통합·조정) 창의적 체험활동 유지 (자율/동아리/봉사/진로활동으로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초등학교 공통교육과정 운영+학교자율시간 운영 교과(군), 학년(군) 유지, (고) 교과영역 삭제 교과(군)별 및 창의적체험활동 20% 증감으로 확대 수업량 유연화(17회→16+1회)로 학교자율권확대 국제비교에 따른 교과별 학습수준 적정화 범교과 학습주제 : 관련 교과로 통합·조정 창의적 체험활동 개선 ☞ 3개 영역으로 재구조화(봉사활동 통합·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초1,2) ‘안전한 생활’ 신설(64시간) (초1,2) 한글교육 강화(국어68시간 증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초1, 2 통합교과로 안전한 생활 내용 흡수·통합 초1, 2 통합교과 내 입학초기적응활동, 신체활동 개선, 한글 교육 강화를 위한 국어 34시간 증배
초등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유학기 운영 근거 마련 학교스포츠클럽활동 현행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유학기(중1) + 진로연계학기(중3-2)로 개선 학교스포츠클럽활동개선(102시간 매학기 편성)
중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이과 과정 구분 없이 학생별 선택에 기반한 맞춤형 교육과정 지향 단위제(1단위 50분 기준 17회), 204단위 공통과목 도입(문이과 통합 지향) ※ 국·영·수, 한국사, 통합사회, 통합과학, 과학탐구실험 고교학점제 일부 도입(23.부터~고1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점 기반 학습자 맞춤형 교육과정 구현 ☞ 50분 기준 17회→16회, 204단위→192학점 공통과목/일반/진로/융합선택과목으로 학생 선택권 확대 및 학교교육 다양화 다양한 선택과목 재구조화(융합선택과목 신설) 온오프라인 공동교육과정, 학교밖교육 등 인정
고등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역량교육(핵심개념, 일반화된 지식, 지식과 기능으로 개선)으로 전환 학생 참여 중심 교수학습방법, 과정 평가 및 수행 평가 강조, 성취평가제 적용(19진로선택과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역량교육 구체화(핵심아이디어, 지식·이해, 과정·기능, 가치·태도로 세 범주로 구조화) 질문과 탐구 중심 교수·학습 및 학습의 과정을 중시하는 평가 등 강화 디지털 기반 교수·학습 및 평가 혁신(온오프라인 수업, 원격수업, 에듀테크 활용 수업 등)
교과교육과정 개발		

I 사소한 괴롭힘도 폭력입니다.

학교 안팎에서 “사소한 장난”으로 시작된 행동일지라도

친구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고 신체적인 괴로움을 준다면 “학교폭력”입니다.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된 학교폭력은 폭행, 상해뿐만 아니라 명예훼손, 모욕 등 법 제2조에서 정한 여러 형태를 포함하는 개념이고, 그 중 강제적인 심부름,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을 제외한 나머지 모두는 형법 또는 특별법상 그 자체가 범죄로 되어 있는 죄명임

1. 법령상 개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¹⁾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 "따돌림"이란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
- "사이버 따돌림"이란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학생들이 특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 반복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가하거나, 특정 학생과 관련된 개인정보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

2. 학교폭력의 유형

유형	학교폭력 관련	예시 상황
신체 폭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해 • 폭행 • 감금 • 약취 · 유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정한 장소에서 쉽게 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감금) ▪ 신체를 손, 발로 때리는 등 고통을 가하는 행위(상해, 폭행) ▪ 강제(폭행, 협박)로 일정한 장소로 데리고 가는 행위(약취) ▪ 상대방을 속이거나 유혹해서 일정한 장소로 데리고 가는 행위(유인) → 장난을 빙자해서 꼬집기, 때리기, 힘껏 밀치는 행동 등도 상대방이 폭력행위로 인식한다면 이는 학교폭력에 해당
언어 폭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예훼손 • 모욕 • 협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러 사람 앞에서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는 구체적인 말(성격, 능력, 배경 등)을 하거나 그런 내용의 글을 인터넷, SNS 등으로 퍼뜨리는 행위(명예훼손) → 내용이 진실이라고 하더라도 범죄이고, 허위인 경우에는 형법상 가중 처벌 ▪ 여러 사람 앞에서 모욕적인 용어(생김새에 대한 놀림, *신, 바보 등 상대방을 비하하는 내용)를 지속적으로 말하거나 그런 내용의 글을 인터넷, SNS 등으로 퍼뜨리는 행위(모욕) ▪ 신체 등에 해를 끼칠 듯 한 언행(죽을래 등)과 문자메시지 등으로 겁을 주는 행위(협박)
금품 갈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돌려 줄 생각이 없으면서 돈을 요구하는 행위 ▪ 옷, 문구류 등을 빌린다며 되돌려주지 않는 행위 ▪ 일부러 물품을 망가뜨리는 행위

1) 학교폭력이 '학생간 폭력'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한 폭력'으로 개념이 확대됨에 따라, 가해자가 학생이 아니라도 피해자가 학생인 경우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음

유형	학교폭력 관련	예시 상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돈을 걷어오라고 하는 행위 등
강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강제적 심부름 강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속칭 빵 셔틀, 와이파이 셔틀, 과제 대행, 게임 대행, 심부름 강요 등 의사에 반하는 행동을 강요하는 행위(강제적 심부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상대방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해야 할 의무가 없는 일을 하게 하는 행위(강요) → 속칭 바바리맨을 하도록 강요하는 경우, 스스로 자해하거나 신체에 고통을 주는 경우 등이 강요죄에 해당
따돌림	<ul style="list-style-type: none"> 따돌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집단적으로 상대방을 의도적이고, 반복적으로 피하는 행위 싫어하는 말로 바보취급 등 놀리기, 빈정거림, 면박주기, 겁주는 행동, 골탕 먹이기, 비웃기 다른 학생들과 어울리지 못하도록 막기 등
성폭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폭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폭행·협박을 하여 *행위를 강제하거나 유사 성*위, 성기에 이물질을 삽입하는 등의 행위 상대방에게 폭행과 협박을 하면서 성적 모멸감을 느끼도록 신체적 접촉을 하는 행위 성적인 말과 행동을 함으로써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 수치감을 느끼도록 하는 행위 등
사이버 폭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해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정인에 대해 모욕적 언사나 욕설 등을 인터넷 게시판, 채팅, 카페 등에 올리는 행위 특정인에 대한 허위 글이나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실을 인터넷, SNS, 카카오톡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 공개하는 행위 성적 수치심을 주거나, 위협하는 내용, 조롱하는 글, 그림, 동영상 등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포하는 행위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 음향, 영상 등을 휴대폰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반복적으로 보내는 행위

II 학교폭력 예방 및 대처방안

학교폭력 피해 징후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늦잠을 자고, 몸이 아프다하며 학교가기를 꺼린다. 2. 성적이 갑자기 혹은 서서히 떨어진다. 3. 안색이 안 좋고 평소보다 기운이 없다. 4. 학교생활 및 친구관계에 대한 대화를 시도할 때 예민한 반응을 보인다. 5. 폭력과 장난을 구별하지 못하여 갈등상황이 발생한다. 6. 멍하게 있거나, 무엇인가에 집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7. 밖에 나가는 것을 꺼려하고, 집에만 있으려고 한다. 8. 쉽게 잠에 들지 못하거나 화장실에 자주 간다. 9. 학교나 학원을 옮기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꺼낸다. 10. 용돈을 평소보다 많이 달라고 하거나 스마트폰 요금이 많이 부과된다. 11. 스마트폰을 보는 자녀의 표정이 불편해 보인다. 12. 따돌림 당한 친구 사례를 얘기하며, 그런 경우 부모로서의 느낌을 묻는 질문을 한다.

가정 내 학교폭력 예방 지도 방안

1. 자녀들에게 친구를 놀리고 고의적으로 소외시키거나, 괴롭히는 행동은 학교폭력이라는 사실을 알려준다.
2. 학교에서 일어난 일이나 친구관계에 대해서 자녀와 매일 대화의 시간을 갖도록 한다.
3. 자녀에게 “무슨 일이 있으면 꼭 엄마, 아빠한테 얘기해. 우리는 항상 네 편이란다” 라고 얘기한다.
4. SNS의 위험성, 악용의 결과,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 지켜야 할 예절 등을 교육한다.
5. 비싼 물건이나, 전자제품(스마트폰, 태블릿PC) 등을 학교에 가지고 가지 않도록 한다.
6. 학교폭력을 목격하거나 사실을 알았을 땐 선생님이나 부모님에게 꼭 이야기하도록 당부한다.



7. 피해를 당할 경우 “그만해” 라고 말하며 단호하게 거부할 수 있도록 자녀에게 자기주장을 미리 연습시킨다.
8. 주변의 학교폭력 관련 기관의 정보를 미리 알려준다. ※ 학교폭력 신고·상담: 학교폭력신고센터(117), 학교폭력SOS 지원단(1588-9128), 도란도란(<http://dbrandran.go.kr>)
9.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학교폭력예방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10. 자녀의 담임 선생님과 주기적 상담을 통해 자녀의 학교생활에 관심을 갖는다.
11. 학교폭력은 가해자의 잘못이며, 피해자의 잘못이 아님을 인식시켜준다.



학교폭력 발생 시 대처방안

1. 자녀와 대화를 통하여 충분한 공감과 지지를 해준다.

“그런 일은 크면서 겪을 수 있어. 별거 아니야~” 라는 식으로 자녀의 상황을 흘려듣지 않고, “혼자 많이 힘들었겠구나. 지금이라도 이야기 해주어서 너무 고마워. 엄마가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될까? 엄마가 도와줄게.” 등의 대화를 통해 힘을 실어준다.

2. 피·가해상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학교에 도움을 요청한다.

집단폭행 및 따돌림 등 지속적이고 심각한 학교폭력 피해 위험에 노출되어 있을 때에는 자녀가 겪은 상황에 대해 감정적으로 흥분하지 않고 구체적인 내용과 상황을 학교에 알리고 도움을 요청하여 진행한다.

3.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는다.

- 117센터 (학교폭력 신고·상담센터)
- (재)푸른나무 청예단 전국 학교폭력 상담전화 1588-9128
- Wee센터(학교, 교육청, 지역사회가 연계하여 학생들의 학교생활을 지원하는 다종의 통합지원 서비스망)
- 헬프콜 청소년상담 1388 (학업중단, 가출, 인터넷중독 등 위기상황에 대해 상담을 실시하고 연계 지원 서비스)



<< 학교폭력 Q&A >>

Q1. 학교폭력인지 아닌지 애매한 경우가 있는데 ?

⇒ 학교폭력의 기준은 때리거나 괴롭히는 가해자 입장이 아닌, 모든 것을 피해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답이 나옵니다.

“나는 장난으로 했는데 상대방이 상처를 받았다” 면, 이것은 학교폭력입니다.

Q2. 돈을 빌린 것인지 갈취한 것인지?

⇒ 돈을 빌려간 사람에게 언제든 갚으라고 편안하게 말할 수 있으면 빌려준 것이고, 무서워서 갚으

라고 말 못하면 갈취예요. 뺏는 것입니다.

Q3. 장난과 폭력의 차이는?

⇒ 장난은 모두가 즐겁게 웃어야 해요. 폭력은 어느 한 쪽이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괴로운 거죠. 한쪽이라도 괴로우면 폭력입니다.

Q4. 친구의 SNS에 장난으로 '나쁜 X, 못된 X'라고 몇 자 적었는데, 이것도 학교폭력인가요?

○ 평소 사용한 '나쁜 X, 못된 X, 도둑 X, 미친 X' 등 등은 모두 언어폭력이며, 이것은 상대방의 인격을 비방하는 모욕에 해당합니다.

○ 핸드폰으로 욕설문자를 보내는 것도 모욕, 협박에 해당된다는 것 잊지 마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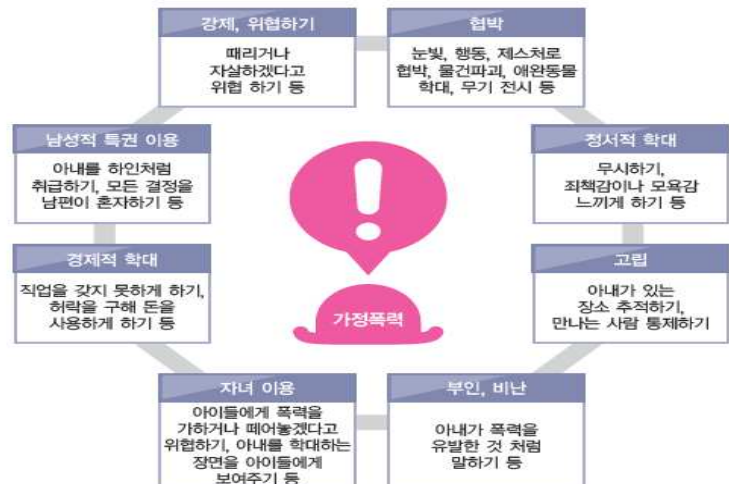
학부모 교육

가정폭력 예방교육

1. 가정폭력이란?

▶ 가정폭력이란 가족 구성원 사이에서 폭력이란 수단을 가지고 상대방을 억압하고 통제하는 상황을 말합니다.

▶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가져오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2. 가정폭력의 예방방법

① 화 조절하기

화는 폭력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지만, 화를 조절하는 데 실패할 경우 심각한 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화를 조절하기 위해서는 화가 자연스러운 감정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화가 나는 감정이 들게 하는 상황들을 떠올려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화를 조절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② 스트레스 관리하기

스트레스는 폭력의 간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폭력발생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보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스트레스 관리 방법을 터득하여 스트레스를 다스려야 합니다.

③ 효과적으로 대화하기

우리나라 속담에는 '말 한마디로 천 냥 빚을 갚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따뜻한 말을 통해 서로에게 쌓인 감정들을 풀고 칭찬을 통하여 따뜻한 분위기를 형성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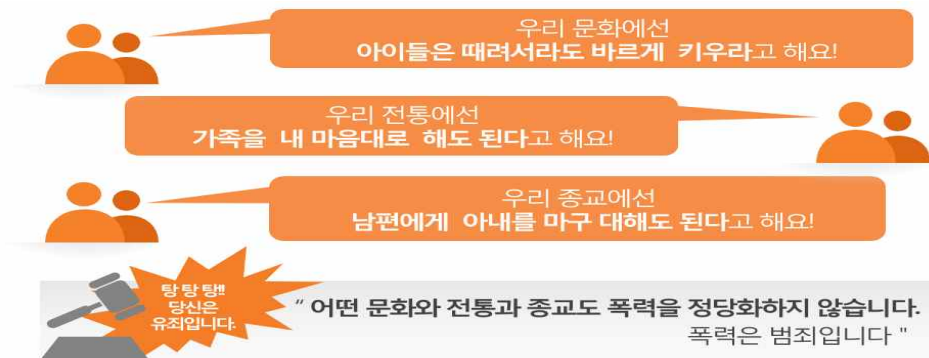
④ 칭찬 한마디 하기

칭찬이 가장 필요하지만 가장 어색한 것도 가족입니다. 칭찬은 부부관계 및 가족관계에 엄청난 힘을 가져옵니다. 칭찬은 모든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기 때문에 칭찬을 먼저 하는 것은 매우 좋은 방법입니다.

가정폭력 대처방법 안내

3. 가정폭력의 대처방법

- ▶ 혹시 지금 피해자라면 **신분증, 신용카드, 통장, 갈아입을 옷** 등은 미리 준비해 놓고 급히 챙겨 올 수 있는 장소에 보관합니다.
- ▶ 위급한 상황을 대비해 조금이라도 비상금을 마련해 둡니다.
- ▶ 위급상황 발생 시 안전한 장소가 필요할 경우를 대비해 미리 갈 곳과 연락할 사람을 정해둡니다.
- ▶ 이웃들에게 폭행을 당하는 소리가 나면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부탁드립니다.



4. 가정폭력 피해지원 기관



□ 아동(18세 미만)학대란?

구 분	정 의	비고(관련법률)
아동학대	아동(18세 미만)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폭력이나 가혹행위, 유기 및 방임	아동복지법 제3조
아동학대범죄	상해, 폭행, 특수폭행, 폭행치사, 유기, 학대, 아동학사, 체포, 감금, 협박,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 강*, 유사강*, 강제추행, 준강*, 준강제추행, 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추행,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명예훼손,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 훼손, 모욕, 주거침입(주거·신체 수색)의 죄, 강요, 공갈, 재물손괴 등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학교폭력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주는 행동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 학부모나 교사에 의한 체벌, 폭언, 욕설, 방임 등은 아동학대 행위인 동시에 학교폭력입니다.

□ 아동학대 발견(인지)시 조치 요령

Step1(인지 즉시 신고)	Step2(보호조치 요구)	Step3(사후 조치)
<p>사실 확인 후 수사기관 (112)에 신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사의 체벌, 폭언, 욕설 학부모의 체벌, 방임 일반인에 의한 폭행 	<p>학교에 피해 학생보호를 위한 보호 조치 요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교폭력전담기구(책임교사)에 피해 학생 보호조치 요구 교사의 체벌인 경우 수업배제 요구 	<p>학교생활 적응을 위한 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피해학생 상담 및 적응 지원 수사결과에 따른 조치 <p>※ 교원의 경우: 아동학대로 판정 시 해임처분, 형사처벌</p> <p>※ 학부모의 경우: 형사처벌</p>

□ 교직원 및 학교종사자는 모두 신고의무자!

- **신고의무 대상:**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 등을 대해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
 - ※ 교사의 체벌뿐만 아니라 상담과정에서 인지한 학부모의 학대행위나 유기, 방임, 학습권 침해도 신고의무 대상
- **신고 의무자(교사직군):** 보육 교직원, 유치원 교직원 및 강사, 초·중등 교직원 및 강사, 전문상담교사 및 산학겸임교사, 학원 및 교습소 종사자 등
- **신고의무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및 학교폭력 은폐에 따른 중징계 조치

☐ 학부모가 알아야 할 아동학대

- 아동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모두 아동학대입니다.

- 치료가 필요한 아동을 방치하는 것(방임)은 아동학대입니다.

예) 심각한 우울증이나 주의력 결핍 장애, 신체적 손상에 대한 치료를 하지 않는 경우

- 아동의 학습권을 박탈하는 것 또한 아동학대입니다.

예) 학생을 학교에 보내지 않는 행위 등

-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과 모욕감을 줄 수 있는 강요된 행위는 아동학대입니다.

- 아동의 복지나 정상적인 발달(건강)을 저해하는 것은 아동학대입니다.

예) 의식주 등 인간의 기본적인 생존에 필요한 복지를 저해하는 행위 등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안내

- 아동학대치사(제4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아동학대중상해(5조): 3년 이상의 징역

- 상습범(제6조):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 병과조치(제8조): 2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등 병과

- 친권의 상실(제9조): 아동학대중상해, 상습범의 경우

☐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노력

- 자녀가 자율적인 인격체임을 인정하고 존중합시다. 존중받는 아이가 타인을 존중하고 책임 있는 생활을 합니다.

- 자녀에게 문제가 있다면 언제든지 선생님과 상담을 하세요.

※ 학교 Wee클래스나 각 교육지원청 Wee센터 상담 신청

- 가정에서의 폭력이나 부모님의 모습은 자녀에게 학습됩니다.

- 부모님의 관심과 적극적인 신고가 아동학대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인권이란?

인권은 말 그대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 권리를 말합니다. 사람이 단순히 사람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누리는 권리가 바로 인권이며 자신의 성격과 지능, 재능, 양심 등을 발전시키는 것 모두가 인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권은 인간이 사회생활을 영위해 가면서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도 함께 의미합니다.

▶ 쉽게 풀어쓴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

- 제3조(학생의 인권보장 원칙)** 학생인권은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 다만, 교육목적상 필요한 경우 최소한으로만 제한(학생의 참여로 제·개정된 학교규칙 등)될 수 있다.
- 제5조(학습에 관한 권리)** 학생은 법령과 학칙에 근거한 정당한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학습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 제8조(차별받지 않을 권리)** 학생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의 차별행위의 정의에 해당하는 이유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 제9조(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학교에서의 체벌은 금지되며 따돌림, 집단 괴롭힘 등 모든 학교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
- 제12조(개성을 실현할 권리)** 학교는 두발길이를 제한하지 않는 등 학생의 개성 실현권을 최대한 보장하되, 교육목적상 필요한 경우에 한해 학생이 참여한 학교규칙에 따라 일정한 검사와 제한을 할 수 있다.
- 제13조(사생활의 자유)** 학교는 학생의 프라이버시권을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나, 위험한 물건의 소지가 의심되는 등 긴급한 사유가 있거나 교육 목적상 필요한 경우 학교규칙에 따라 일정한 검사와 제한을 할 수 있으나,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일괄검사는 지양하여야 한다. 다만, 수업방해의 방지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학생의 휴대전화기 사용과 그 밖에 전자기기의 소지를 규제할 수 있다.
- 제14조(사생활의 비밀을 보호 받을 권리)** 학교는 학생에 관한 사적 정보를 본인 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6조(양심·종교의 자유)** 학교는 학생의 잘못을 반성할 다양한 기회를 제공(학생의 양심에 반하는 내용의 반성, 서약 등 진술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하고, 종교 교육의 참여 여부를 자유롭게 선택할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 제17조(표현의 자유)** 학교는 학생의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19조(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개정에 참여할 권리)** 학교는 학생이 학교규칙 제·개정 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하고 이를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 제26조(징계 등 절차에서의 권리)** 학교는 학생징계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도록 보호자에 대한 사전통지, 의견진술권 등을 반드시 보장해야 한다. 또한 징계는 학생에 대한 응징이 아닌 회복과 복귀를 목적으로 실시해야 하며 징계 내용 등을 공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30조(학생에 대한 인권교육)** 학교는 학생의 인권에 관한 교육을 학기당 2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제31조(교직원에 대한 인권 연수와 지원)** 학교는 교직원을 대상으로 연수를 연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제32조(보호자의 권리와 교육)** 학교는 보호자에 대하여 인권교육 또는 간담회를 연 2회 이상 추진하여야 한다.

▶ 가정에서의 인권교육

가정에서의 인권교육은 기본적으로 **가족 간의 사랑**에서 출발합니다. 그러므로 행복한 가정생활 속에서의 형제애, 가족 간의 예절, 나아가 이웃 간의 예절 등이 가정에서의 인권교육의 본질적인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정에서의 인권존중 교육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친인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학교, 가정, 지역사회의 상호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인권을 소중히 여기고 인권에 관심을 갖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될 때 우리 어린이들이 더욱 밝고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으리라 믿고 학교에서도 어린이들의 인권교육에 관심을 갖고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 자녀의 입장이 되어 자녀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올바른 인권지킴이가 되기 위해 학부모님께서도 많은 관심과 실천을 부탁드립니다.

▶ 도덕성을 길러주는 부모 교육

☒ 도덕성을 길러주기 위한 부모의 올바른 훈육법

□ 아이에게 선택의 기회를 줌으로써 도덕적 갈등 해결 능력을 길러주어야 합니다.

아이가 선택의 기로에 설 때 정직을 우선으로 하는 선택을 하게하고, 그 선택에 대해 설명해 주어야 합니다.

□ 부모의 본보기로 자연스럽게 도덕성을 길러 주어야 합니다.

말로는 도덕성을 강조하지만 정작 부모가 아이 앞에서 도덕적이지 못한 행동을 하게 된다면 아이는 혼란스러워 합니다. 부모의 도덕적 본보기가 필요합니다.

□ 무조건적인 칭찬보다는 과정을 살펴가며 잘한 점을 칭찬해야 합니다.

결과만 칭찬하면 위험합니다. 칭찬을 받기 위해 부정한 방법을 쓸 수 있기 때문이지요. 또 결과만 칭찬하면 아이가 목표에 도달하지 못했을 때 좌절하기 쉽습니다.

□ 잘못된 목인하지 말고 지적하여 고치도록 지도해야 합니다.

잘못을 목인하여 그 잘못이 반복되면 점차 도덕성이 낮아집니다.

의사소통, 아이의 인권을 존중하고 마음을 여는 열쇠입니다.

나 - 전달법(I-Message) 으로 대화하세요.

상대방을 비난하지 않고

문제가 되는 상대방의 행동과 그 행동의 결과를 객관적으로 표현하여

그 행동이 나에게 미친 영향을 구체적으로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방법입니다.

나 - 전달법(I-Message) 의 3가지 요소

1. 나의 마음을 불쾌하게 하는 상대방의 행동이 무엇인가? (사실)
2. 상대방의 행동이 나 자신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영향)
3. 그러한 영향에 대해 나는 어떤 느낌을 가지는가? (느낌)

YOU-Message	I-Message
너는 학교 끝나면 집으로 오지 않고 어디서 무얼 하다 오는 거니? 도대체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네가 학교 끝나고 연락도 없이 집에 오지 않으면(사실) 나는 네가 어디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영향) 너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봐 걱정되고 불안해(느낌)

나 - 전달법(I-Message) 을 긍정적 감정 표현에도 사용하세요.

- ☆ 네가 미술 시간에 어지럽혀 놓은 물감을 정리해 놓으니(사실)
- ☆ 책상이 깨끗해져서(영향)
- ☆ 내가 기분이 참 좋아.(느낌)

○ 교권, 교권침해

교권이란?

- ◆ 교원이 가지는 전문교과에 대한 지적능력, 높은 수준의 덕성과 인격을 바탕으로 진리와 양심에 따라 외부의 부당한 지배나 간섭 없이 자유롭게 교육활동을 할 수 있는 권리
- ◆ 교육법규에 따른 교원의 수업권, 교육과정 결정권, 교재 선택 활용권, 교수·학습 내용 편성권, 교수·학습 방법 결정권, 성적 평가권, 학생생활지도권, 학생징계 요구권 등
- ◆ 현행 교권은 헌법 31조 4항, 교육기본법, 교원 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교원 예우에 관한 규정에 명시

교권침해란?

- ◆ 교권침해는 교사의 교육할 권리와 전문직 종사자로서의 권리, 인간으로서의 기본권에 대한 교육행정기관, 학교행정가, 동료 교원, 학부모, 학생 등의 침해로 정의할 수 있다.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

-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5조의1항에는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 ① 형법상 상해·폭행죄, 협박죄, 명예에 관한 죄, 손괴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
 - ② 성폭력범죄 행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 ③ 불법정보유통행위(「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 ④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로서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 ◆ 그리고 교육부의 「교육활동 침해 행위 고시」 제2조는 교원의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 ① 「형법」 제8장(공무방해에 관한 죄) 또는 제34장 제314조(업무방해)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로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 ②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 ③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 ④ 그 밖에 학교장이 「교육공무원법」 제43조 제1항에 위반한다고 판단하는 행위

○ 교권침해 시 예상될 수 있는 결과

학부모의 불법 행위로 인한 형사처벌(공무집행방해죄, 공용물손괴죄 등), 학부모에 대한 민사상 손해 배상 청구 등으로 인한 불편한 학교생활이 있을 수 있고, 학생들은 교권보호위원회 결과 후 조치(교내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출석정지 등)

○ 바람직한 학부모 학교 참여 방법

<내 자녀에 관한 상담을 하고 싶을 때>

· 학부모 상담주간을 가급적 이용하고 비정기적 상담이 필요한 때에는 담임교사에게 수업시간을 피해 전화, SNS 등으로 예약 후 방문하여 상담 실시

<내 자녀가 학교폭력 가해자, 피해자로서 도움을 받고자 할 때>

- 관련 법률의 이해(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 담임 및 학교폭력담당교사, 교감, 교장과 순차적으로 상담 실시

Ⅰ 학부모 학교 참여 십계명 Ⅰ

- ✎ 학부모 학교 참여는 자녀에 대한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 ✎ '내 아이'만을 위한 이기심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을 함께 잘 키우기 위한 마음으로 참여합니다.
- ✎ 학교와 선생님을 존중하고, 협력하는 태도로 참여합니다.
- ✎ 학부모의 권리와 함께 책임에 대해서도 함께 생각합니다.
- ✎ 학교와 학부모회에 주인의식을 가지고 참여합니다.
- ✎ 학교와 적극적으로 소통합니다.
- ✎ 가정에서의 학부모 역할을 충실히 수행합니다.
- ✎ 학교생활에 대해 평소에 자녀와 많은 대화를 나눕니다.
- ✎ 되도록 많은 학부모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합니다.
- ✎ 학부모 교육 등에 지속적으로 참석하여 늘 배우는 자세로 참여합니다.

“학부모의 참여가 더욱 좋은 학교를 만듭니다.”

학부모 교육

생명존중·자살예방과 대처 및 안전사고 예방교육

1. 생명존중 및 자살 예방과 대처

우리나라의 자살 증가율이 OECD 국가 중 1위에 달하고 있습니다. 특히 충동적이고 판단력이 아직 미흡한 청소년들의 경우 ‘사고’에 이어 2번째 사망원인에 대두될 만큼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에 가정에서 부모님의 사랑과 관심으로 자녀와 많은 대화의 시간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과 같은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자살 예고 징후

자살징후는 언어적, 행동적, 상징적 표현 등이 다양하게 나타난다. 따라서 여러 가지 단서에 대해 미리 알고 이를 세심하게 관찰하여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신건강의 위험신호



1. 자살하겠다고 위협하거나 혹은 자살을 기도한 일이 있었던 경우
2. 일기장이나 친구에게 죽음에 관한 내용을 암시

3. 자살에 관한 책을 읽거나 자살 관련 사이트에 가입·활동하거나 글을 쓰는 경우
4. 평상시 해오던 일상 활동을 거부하고 학업 성적이 계속 떨어지거나, 장기결석, 가출 등을 보일 때
5. 갖고 있던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줄 때
6. 유언장을 쓰는 경우
7. 자살에 대해 말하거나 농담하는 일이 많아질 때
8. “더 이상은 못 하겠어”, “끝내버리고 싶어”와 같은 말을 하는 경우
9. 식사량의 변화 (너무 적게 먹거나 또는 너무 많이 먹는 경우)
10. 자살하려는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을 때
11. 침울하거나 괴로워하던 표정을 짓던 사람이 갑자기 평온한 상태를 보이는 경우

가정에서 대처방법

1. 자살 예고 징후를 무시하지 않는다.
2. 만약 자살을 주제로 이야기하기를 원한다면 피하지 말고 조용히 들어준다.
3. 놀라거나 비난하거나 혐오스러운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
4. “다 잘 될 거야”와 같이 무책임한 확신을 준다든가, “매사에 감사할 줄 알아야지”라는 진부한 소리를 삼가한다.
5. 자살 예고 징후를 보인 사람을 혼자 내버려 두지 말고, 즉시 주변에 도움을 요청한다.
6. 자녀와의 충분한 열린 대화 시간 확보를 통한 정서의 변화를 파악한다.
7. 부모의 모범적인 생활을 통한 모델링을 제시한다.
8. 자녀의 장점과 자존감을 높여준다.
9. 가족 구성원간의 좋은 관계를 유지한다.

구조 요청 전화 및 상담소 안내

- ▶ 헬프콜 청소년 전화(24시간 전화상담) 1388
- ▶ 자살 및 정신건강 위기 상담전화 1577-0199
- ▶ 한국생명의전화 www.lifeline.or.kr/1588-9191
- ▶ 한국자살예방협회 사이버상담실 www.suicideprevention.or.kr
- ▶ 한국청소년상담원 www.kyci.or.kr/739-2000

2. 게임중독 예방

게임중독예방 학부모 10계명

- 첫째. 자녀와 함께 컴퓨터, 스마트폰 이용 규칙 정하기
- 둘째. 자녀가 가입한 웹사이트, 카페 및 블로그가 무엇인지 알기
- 셋째. 온라인에서는 더욱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하도록 하기
- 넷째. 자녀 스마트폰에 설치된 앱(App), 게임이 무엇인지 알기
- 다섯째. 자녀 수준에 맞는 인터넷, 게임, 스마트폰 서비스 설정하기
- 여섯째. 이름, 주소, 학교 등 개인정보를 함부로 공개하지 않도록 하기
- 일곱째. 인터넷상의 모든 정보가 사실이 아님을 상기 시켜주기

여덟째. 디지털기기의 장점을 이용하여 다양한 학습 프로그램 이용하기

아홉째. 인터넷상에 글을 쓸 때 남을 배려하고, 예절을 지키도록 하기

열째. 저작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불법 이용하지 않도록 하기

3.

정보통신윤리교육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 ▶ 자녀와 함께 컴퓨터, 스마트폰 이용 규칙 정하기
- ▶ 온라인에서는 더욱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하도록 하기
- ▶ 자녀의 인터넷, 스마트폰 이용과 습관 파악하기
- ▶ 자녀 수준에 맞는 인터넷, 게임, 스마트폰 서비스 설정하기
- ▶ 이름, 주소, 학교 등 개인정보를 함부로 공개하지 않도록 하기
- ▶ 인터넷상의 모든 정보가 사실이 아님을 상기 시켜주기
- ▶ 디지털기기의 장점을 이용하여 다양한 학습 프로그램 이용하기
- ▶ 인터넷상에 글을 쓸 때 남을 배려하고, 예절을 지키도록 하기
- ▶ 저작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불법 이용하지 않도록 하기

4.

교통사고 예방

- ▶ 횡단보도, 건널목 신호등 지키기, 우측통행 준수 지도
- ▶ 인라인 스케이트 및 자전거 안전사고 예방지도 (보호장구 착용)
- ▶ 어린이 보호 구역(School Zone)에서의 교통안전 지도 및 홍보

5.

유괴 예방

실종·유괴 예방 수칙

- ▶ 비상시를 대비하여 자녀의 새 친구, 주변 사람들의 연락처를 미리 파악한다.
- ▶ 부모의 허락 없이 낯선 사람의 차에 타지 않도록 하며, 얼굴을 아는 사람이어도 함부로 따라가지 않도록 교육한다.
- ▶ 자녀의 이름, 전화번호를 옷 안, 신발 안, 가방 안쪽 등 보이지 않는 곳에 써둔다.
- ▶ 다른 사람을 통해서든 어떠한 경우에도 아이를 데려오게 하거나 심부름 시키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한다.
- ▶ 도로와 떨어져서 인도 안쪽으로 걷는 습관을 기르도록 교육한다.
- ▶ 통학로의 우범지역과 사각지대를 파악하여 아이에게 위험한 곳임을 미리 알려준다.
- ▶ 모르는 사람에게 예의 바르게 행동하는 것보다는 자신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우선임을 강조한다.
- ▶ 자녀들이 스스로 자신을 보호할 수 있도록 실종예방수칙(안돼요! 싫어요! 도와주세요!)을 반복해서 지도한다.

6.

불조심 예방



- ▶ 화재발생시 대피요령을 알아봅시다.
 - 낮은 자세로 기어서 피난해야 합니다.
 - 수건이나 휴지 등으로 코와 입을 막고 열과 연기로부터 멀리 떨어져야 합니다.

▶ **피난을 위한 복도, 계단에 적치된 물건은 없나요?**

복도, 계단 등은 화재발생 등 유사시 피난통로로 사용됩니다. 계단에 문을 설치하거나 물건을 적치하는 행위는 피난 시 장애가 되어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옥상은 피난장소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옥상출입문은 개방하여야 합니다.

▶ **가정에서 알아야 하는 상식!**

가정과 차량에는 소화기가 비치되어 있나요?

화재발생 등 유사시 피난대피로는 알고 있나요? 피난장소는 있나요?

1회 누전차단기의 시험스위치를 눌러보는 것으로도 전기화재는 예방됩니다.

가스레인지 밸브와 중간밸브는 사용 후 항상 잠그고, 월 1회 누설여부를 확인하세요.

▶ **작은 관심과 노력! 화재로부터 생명과 재산을 지킵니다. 화재 신고는 전국 국번 없이 ☎119**

학부모 교육

촌지 수수, 불법찬조금 모금 근절 및 청탁금지법

1. 불법찬조금이란

“초·중등교육법” 제3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4조에 정해진 학교발전기금의 목적, 조성 절차와 방법 등을 위반하여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조성한 금품

2. 불법찬조금은 왜 근절되어야 하나?

불법찬조금은 촌지와 더불어 학교에 대한 “사회의 불신”을 초래하고 있으며, “학교경영의 투명성과 교육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반드시 근절되어야 합니다.

3. 촌지 수수 현황

매년 새 학기 및 스승의 날을 전후하여 학부모들이 자녀에 대한 교사의 관심 증대, 자녀의 진학상담 등의 명분으로 학교를 방문하여 담임교사 등에게 촌지를 제공하는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4. 촌지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

- 학부모는 자녀의 학교생활이 조금이라도 유리해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심리로 촌지를 제공하여 있으며,
- 촌지를 받는 교사는 학부모들의 감사의 표시로 받아들여 관행적, 무감각적으로 수수하는 경향이 있으며,
- 촌지수수는 개별적, 음성적으로 이루어지므로 지도단속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5. 촌지는 왜 근절되어야 하나

- 교직사회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는 가장 큰 원인 중의 하나이며, 촌지가 근절되어야 학부모나 지역사회로부터 신뢰받고 투명한 교육풍토를 조성할 수 있으며,
- 일부 몰지각한 교사의 촌지수수 행위로 교단에서 보람을 느끼며 헌신적으로 교육하는 대부분 교사들의 사기를 저하시켜 결국 아이들에게 그 피해가 돌아가 교육현장이 황폐화되므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합니다.

6. 수수가 금지된 금품 등을 받은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

가. 금지된 금품 등을 제공받은 경우 **즉시 반환(원칙)**

나. 금품 등이 멸실·부패·변질 등의 우려가 있거나, 그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제공자에게

반환이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소속기관장(학교장) 또는 행동강령관(교감 또는 원감, 교감이 없는 경우 학교장이 교사 중에서 지정)에게 신고 후 소속기관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

다. 신고된 금품에 대한 행동강령책임관의 처리

- ◆ 멸실·부패·변질되어 경제적 가치가 없는 금품 등 ⇒ 폐기처분
- ◆ 멸실·부패·변질 우려가 있는 금품 등 ⇒ 사회복지시설 및 공익단체 등에 기증
- ◆ 기타 금전적 가치가 있는 금품 등 ⇒ 기관(학교)홈페이지 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또는 학교회계에 귀속

7. 촌지수수 및 불법찬조금 모금 적발시 처분은 어떻게 되나

가. 교육공무원이 촌지.금품 등을 제공받은 경우, 전라북도교육청「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기준」
[별표2] ‘청렴의무 위반 처리기준’을 적용하여 처분

청렴의무 위반 처리기준

구 분	직무관련자로부터 의례적인 금품이나 향응 등을 수수한 경우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 등을 수수하고, 위법.부당한 처분은 하지 않은 경우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 등을 수수하고, 위법.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	
	수동	능동	수동	능동	수동	능동
100만원 미만	경징계 의결 요구	경징계 의결 요구	경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100만원 이상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나. 교육공무원이 불법찬조금 모금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는 경우 문책

다. 학교장이 촌지수수나 불법찬조금 모금을 인지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처벌이나 인사상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라. 촌지수수는 받은 사람은 물론 건네는 사람도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8. 촌지수수 및 불법찬조금 신고센터 운영 안내

전라북도교육청에서는 청렴하고 투명한 교육행정 구현을 위하여 촌지수수 및 불법찬조금 관련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교육청 신고센터

- 홈페이지(www.jbe.go.kr)/전자민원/원클릭신고센터/촌지수수, 불법찬조금신고
- 촌지수수 신고(☎ 063-239-3300 교원인사과)
- 불법찬조금 신고(☎ 063-239-3576 예산과)

학부모가 알아야 할 청탁금지법

🕒 2022 새학기 학부모가 알아야 할 청탁금지법 🕒

Q. 선생님과 면담 시 선생님께 음료수라도 드리고 싶은데 청탁금지법 상 허용되나요?



A. 안됩니다.

✓
학생에 대한 평가·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담임교사 및 교과담당교사와 학생(학부모) 사이의 선물은
가액기준인 5만원 이하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고·의례 목적을 벗어나므로
금품등 수수 금지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없습니다.



🕒 2022 새학기 학부모가 알아야 할 청탁금지법 🕒

Q. 자녀가 유치원을 졸업하고 초등학교에 들어갔습니다. 3년간 다닌 유치원 선생님들께 작은 감사 선물을 드려도 청탁금지법 상 허용되나요?



A. 네, 허용됩니다.

✓
상급학교로 진학한 후에는
이전 학교에 재학했던 학생(학부모)과 교사 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관련성이 없으므로
가액기준인 5만원을 초과한 선물(100만원 미만)도
허용될 수 있습니다.



🕒 2022 새학기 학부모가 알아야 할 청탁금지법 🕒

Q. '스승의 날'에 학생들이 돈을 모아 선생님께 5만원 이하의 선물을 해도 청탁금지법 상 허용되나요?



A. 안됩니다.

✓
학생에 대한 평가·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담임교사 및 교과담당교사와 학생 사이의 선물은
가액기준인 5만원 이하라도
금품등 수수금지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없습니다.



🕒 2022 새학기 학부모가 알아야 할 청탁금지법 🕒

Q. '스승의 날'에 담임선생님께 카네이션을 드리는 것이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
학생 대표 등이 스승의 날에 담임교사 및 교과담당교사에게
공개적으로 제공하는 카네이션, 꽃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에 따라 사회상규상 허용됩니다.



Q. 자녀의 선생님이 결혼을 하시는데, 학생들이 선생님의 결혼식에서 축하를 불러도 청탁금지법 상 허용되나요?



A. 네, 허용됩니다.

학생들이 교사의 결혼을 축하하는 의미로 식당에서 축하를 부르는 것은 청탁금지법 상 금품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금품등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법 제8조제3항제8호에 따라 사회상규상 허용될 수 있습니다.



Q. 담임선생님의 결혼식에 학부모들이 선물이나 축의금을 드릴 수 있나요?



A. 안됩니다.

학생에 대한 평가·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담임교사 및 교과담당교사와 학생(학부모) 사이의 선물·경조사비는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을 벗어나므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청탁금지법상 가능한가요?

-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간식을 주는 경우
- 자녀의 생일을 맞아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반 친구들에게 간식이나 케이크를 보내는 경우
- 각종 기념일에 학급 학생들끼리 작은 선물을 주고 받는 경우

A. 네, 모두 가능합니다.

학생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담임 선생님이 학생에게 응원을 위해 간식등을 제공하거나 어린이집·유치원 자녀의 학부모가 자녀의 생일에 친구들과 나누어 먹을 수 있는 케이크나 간식을 보내는 것은 청탁금지법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학교에서 운동회에 참석한 지역주민이나 학부모들에게 조출한 식사와 선물을 제공해도 청탁금지법상 허용되나요?

A. 네, 허용됩니다.

지역주민, 학부모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학교에서 운동회에 참석한 지역주민과 학부모에게 식사나 선물을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에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비록 참석자 중에 공직자등이 있다 하더라도 학부모의 일원으로서 운동회 참석자 모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되는 식사와 선물을 제공받는 것은 사회상규상 허용될 수 있습니다.



🕒 2022 새학기 학부모가 알아야 할 청탁금지법 🕒

자녀가 고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대학교에서 입시설명회를 개최하면서
고등학교 자녀와 학부모에게 제공하는 다과와 홍보물을 받아도
청탁금지법상 허용되나요?

A. 네, 허용됩니다.

고등학교와 학부모는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입시설명회에서
제공하는 다과와 홍보물을 받는 것은 청탁금지법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비록 입시설명회에 참석한 학부모 중에 공직자등이 있다 하더라도
학부모의 일원으로서 입시설명회 참석자 모두에게 제공되는
다과와 홍보물을 받는 것은 사회상규상 허용될 수 있습니다.



🕒 2022 새학기 학부모가 알아야 할 청탁금지법 🕒

학교운영위원회 회의가 끝난 후
학교에서 학부모위원에게 식사를 제공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은 청탁금지법상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므로
공무수행에 관하여서는 금품등의 수수가 금지되나, 통상적인 회의가 끝난 후
학교는 학부모위원에게 원활한 직무수행, 사고-의례 목적으로
3만원 이내의 식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단, 위원 이 취임식이나 시무식 종무식 등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특별한 경우에는 사회 상규에 따라
3만원을 초과하는 식사도 제공할 수 있습니다.



🕒 2022 새학기 학부모가 알아야 할 청탁금지법 🕒

청탁금지법상 가능한가요?

- 학교 축제 때 학부모회에서 떡볶이를 판매한 수익금을
학교발전기금으로 기증하는 경우
- 재학 중인 학생의 학부모로서
물품이나 시설수리비용을 학교에 기증하는 경우

A. 네, 모두 가능합니다.

「초·중등교육법」 등 관련 법령이 정한 요건에 따라
학교발전기금을 조성 운용하는 경우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의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됩니다.



🕒 2022 새학기 학부모가 알아야 할 청탁금지법 🕒

자녀가 학교 운동부에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운동부 학생들의 부모들이 비용을 모아서
학교 직원인 운동부 지도자의 임금을 지급하거나
전지훈련비, 간식비를 지원할 수 있나요?

A. 네, 관련 법령 절차를 따른다면 가능합니다.

「학교체육진흥법」,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학교 후원금을 학교 회계에 적법하게 편입하여 운영하는 경우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의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됩니다.
단, 법령을 따르지 않고 금품등을 직접 지급하거나
운동부 지도자의 통장에 입금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Q. 어린이집 원장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지만
보육교사는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하는데 맞는 건가요?

A. 네, 맞습니다.

국립 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경우,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인
공공기관의 직장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경우
그 대표자인 원장은 청탁금지법상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합니다.

한편, 어린이집의 소속 구성원인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지 않아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Q. 학교운영위원회나 학교폭력자치위원회의
학부모위원도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가요?

A. 네, 맞습니다.

민간인 신분의 학부모가
학교운영위원회(학교폭력자치위원회)의 위원에 되는 경우
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의해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합니다.

다만, 학교운영위원으로서의 업무수행에 관하여서만
일부 규정(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금지, 금품등의 수수금지 등)이 준용되고,
학부모의 본래 직업이나 사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Q. 유치원 선생님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가요?

A. 네, 맞습니다.

초·중·고등학교 뿐만 아니라 유치원도
청탁금지법 제2조제1호라목에 따라
각급 학교로서 '공공기관'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초·중·고등학교 교직원 뿐만 아니라
유치원의 교직원도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입니다.



청탁금지법으로 더욱
깨끗하고 공정해지는 학교생활
국민권익위원회가 함께 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

[1] 청소년 흡연 왜 위험한가?

- 청소년 흡연! 담배 피우는 친구 있으면 18배 급증, 흡연자의 평균수명은 16년 단축됩니다.
- 청소년기 흡연을 시작하여 계속 흡연하는 경우 24년 수명 단축, 폐암 발생률 23배 증가합니다.
- 정자 기형을 유발하여 2세에 나쁜 유전형질을 물려줄 수 있으며, 16세 이하에서 담배를 피우는 경우

20세 이후에 담배를 시작하는 경우보다 피해 정도가 3배 더 높습니다.

- 흡연 시 발생하는 일산화탄소는 몸의 산소 공급을 억제, 뇌의 저산소증을 유발하여 뇌기능을 억제 시킵니다.

[2] 간접 흡연과 3차 흡연

간접흡연이란, 흡연자가 내뿜는 담배 연기와 담배가 타면서 발생하는 연기를 옆에 있거나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이 들이마심으로써 담배를 피우는 것과 같은 효과가 생기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간접흡연을 ‘강요된 흡연’ 혹은 ‘강제적 흡연’ 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흡연을 할 때 발생하는 독성물질 중 가스형태의 화학물질은 벽, 가구, 옷, 장난감, 집먼지 등의 표면에 달라 붙을 수 있습니다. 흡연이 끝난 이후에도 실내 환경에서 장기간 흡연에 의한 오염 물질이 배출될 수 있는데 이를 ‘3차 간접흡연’ 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가족 중 한 사람이라도 흡연하는 경우 나머지 가족 역시 흡연의 피해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 학교(운동장 포함)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교내에서 흡연할 수 없습니다.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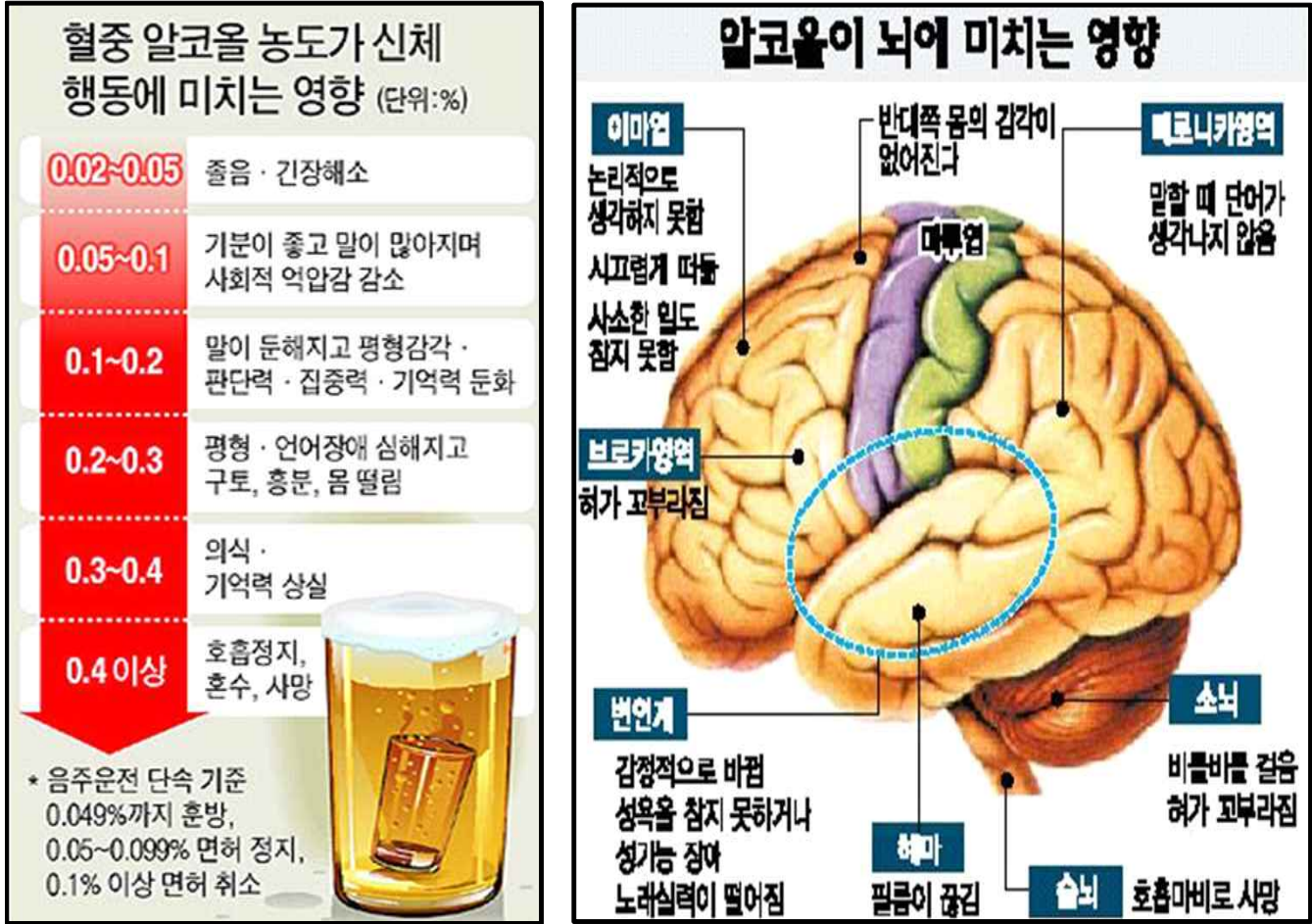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해 학교 교사(校舍)와 운동장이 금연구역입니다.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

[3] 부모님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청소년 흡연을 예방하는 데는 부모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부모가 담배를 피우는 가정의 청소년일수록 흡연율이 높다고 합니다. 부모가 담배를 피우면 사랑하는 자녀의 건강을 해치는 결과가 되므로 의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 ◆ 부모가 흡연을 하는 경우라면 강한 의지로 금연을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 주십시오!
국가에서는 국민의 금연을 돕기 위해 여러 가지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 전국 보건소 무료 금연클리닉 운영 : 보건소에 금연클리닉을 운영
- ❖ 금연 상담 전화 : 1544-9030 금연콜센터 금연 할 때까지 1년간 전문 상담사가 꾸준히 관리
- ◆ 자녀가 함께하는 장소에서 담배를 피우지 않습니다.
 - 자녀가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입습니다.
 - 어른이 되면 담배를 피워도 되는 것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 자녀들에게는 그 어떤 금연운동보다 부모님의 관심과 사랑이 필요합니다. ♥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의 발표로는 우리나라의 성인 5명 중 1명은 **고위험 음주자**이며, 음주 습관 및 절주에 관한 인식개선이 시급한 상태로 나타났습니다.

[※ 고위험 음주는 1회 평균 음주량이 7잔(여자 5잔) 이상, 주 2회 이상의 음주를 의미]

특히, 청소년이 음주를 하게 되면 성인보다 더 강렬하게 인체에 작용하게 되고 약물 및 알코올 중독에 빠질 확률도 훨씬 높아집니다. 그 이유는 신체 내의 세포를 비롯한 모든 조직이 아직 성숙되지 못한 시기이므로 유독 물질의 침해를 받아 조직들이 쉽게 손상되기 때문입니다. 평소 **자녀들의 행동과 관심사**를 세심히 관찰하시어 자주 대화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학부모 교육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양성평등 교육

[1] 성희롱 · 성폭력 예방을 위한 자녀 교육법

오늘날 각 종 매스미디어의 범람으로 인한 성의 개방화로 청소년들이 주로 이용하는 성 정보 매체 중에는 왜곡되거나 과장되어 있는 것들이 많아서 성 정보의 불균형을 갖게 만듭니다. 이러한 불균형은 청소년들의 바른 성의식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그들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데 장애가 될 수 있습니다.

☆ 잘못된 성행동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1. 건전한 성장환경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지나치게 보수적이거나 억압적인 가정환경, 부모의 성(性)적 관계에 문제가 있거나 남녀 차별적인 육아태도가 문제가 됩니다.
2. 발달단계에 맞는 성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3. 잘못된 성행동은 신체적인 문제가 아니라 심리적이고 성격 구조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치료가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가족들의 협조가 꼭 필요합니다.
4. 청소년들의 신체 변화에 따른 호기심을 바르게 충족시켜 줌으로써 신체적, 정신적 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하고 충동적이거나 우발적인 성행동을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 주어야 합니다.
5. 청소년들이 성에 관한 올바른 지식을 습득하고 책임감 있는 태도를 취하여 올바른 비판 능력과 건전한 성(性)문화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합니다.

[2] 양성평등을 위한 자녀 교육법

양성평등교육은 성 의식을 바르게 갖게 하고 성 행동 등을 합리적이고 인격적이며 사회적으로 원만하게 하도록 돕는 교육입니다. 따라서 학교와 가정이 협력하여, 의도적이며 계획적으로 시행해야 합니다.

1.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 습관을 기릅니다.

성교육 목표는 몸을 깨끗이 하고 신체의 안전을 도모하고, 규칙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등 기본이 되는 생활습관을 기르며 가정 안에서는 부모, 형제, 친척 등과 원만한 관계를 갖게 합니다.

2. 지적 학습을 통하여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성 지식을 습득합니다.

남녀의 생리적 구조와 기능, 남녀의 심리적 특성과 역할, 남녀 간의 평등, 신뢰, 존경, 협력에 입각한 사회적 관계 등에 관해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지식을 가지게 합니다.

3. 올바른 성 의식, 분별 있는 성 윤리를 확립합니다.

이미 형성된 기본적인 생활습관과 과학적 성 지식을 바탕으로 하여 올바른 성 의식을 가지게 하고 분별 있는 성 윤리를 형성하게 하며, 이러한 성 의식, 성 윤리는 어려서부터 어른이 될 때까지 은연 중에 형성되는 것입니다.

4. 남성과 여성은 인간의 가치에 있어 평등하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남성과 여성은 서로의 생김새와 마음의 차이를 잘 알고 인정한 다음에 서로 위로하고, 협력하는 관계이므로 서로 평등한 존재임을 알게 합니다.

학부모 교육

감염병 예방 교육

[1] 학생들의 신학기 학교생활 시작, 감염병 주의 당부

(1) 인플루엔자

: 일반일에게 ‘독감’으로 알려져 있는 인플루엔자는 바이러스에 의해 전염성이 높은 급성 호흡기 질환으로서 고열, 두통, 근육통과 같은 전반적인 신체 증상을 동반하며, 주로 겨울철에 발생합니다.

(2) 수두와 유행성이하선염

: 환자가 기침할 때 분비되는 침방울(비말), 콧물 등 호흡기 분비물을 통해 전파되는 감염병으로, 매년 4월~6월과 10월~이듬해 1월 사이 발생이 증가합니다.

[2] 상반기 주의 해야 할 5대 국내 감염병

(1) 유행성이하선염

- : 4~6월이 계절적 유행시기로 유치원, 학교 등 집단생활을 하는 19세 미만의 연령에서 높은 발생률을 보임.
- : 유행성이하선염의 증상은 발열이나 이통, 혹은 아래턱의 각진 부분에 압통이 대표적입니다.

(2) 수두

- : 4~6월과 11~1월이 계절적인 유행시기로 6세 이하 소아와 초등학생중심으로 주로 발생합니다.

(3) 수족구병

- : 5~8월이 계절적 유행시기로 미취학아동에서 대부분 발생하며 특히 '16년에 예년 대비 발생 규모가 크게 증가합니다.

(4) A형간염

- : 대부분 20~40대에서 발생. 계절적 양상은 없으나 '16년에 3~5월에 집중 발생. A형간염 바이러스에 오염된 음식물이나 물을 섭취할 경우 발생 하며, A형간염 환자와 분변-경구 경로로 접촉, 환자의 혈액에 노출, 성 접촉 등으로 전파될 수 있습니다.

(5) 레지오넬라증

- : 의료기관, 요양시설, 목욕탕, 숙박업소 등 다중이용시설 및 공동주택에서 연중 발생합니다.

[3] 감염병 예방을 위한 5대 국민행동수칙 안내

- ① 올바른 손씻기 ② 기침예절 지키기 ③ 음식 익혀먹기 ④ 예방접종 받기 ⑤ 해외여행력 알리기

[4] 코로나19에 대비한 보호자 및 가족 준수사항

- ☐ 매일 아침 자녀가 등교하기 전 체온과 호흡기증상 유무를 확인하고, 자가진단 앱을 참여합니다.

- ☐ 다음의 경우에는 등교를 시키지 않고 담임선생님에게 알립니다.

- ① 코로나19 임상증상이 나타난 경우
- ② 해외 여행을 다녀왔거나 확진환자와 접촉하여 자가격리 통지서를 받은 경우
- ③ 가족(동거인) 중 해외여행이나 확진환자와의 접촉으로 자가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있는 경우

- ☐ 자녀가 등교 중지된 경우 보호자께서는 반드시 다음의 내용을 준수하도록 자녀에게 교육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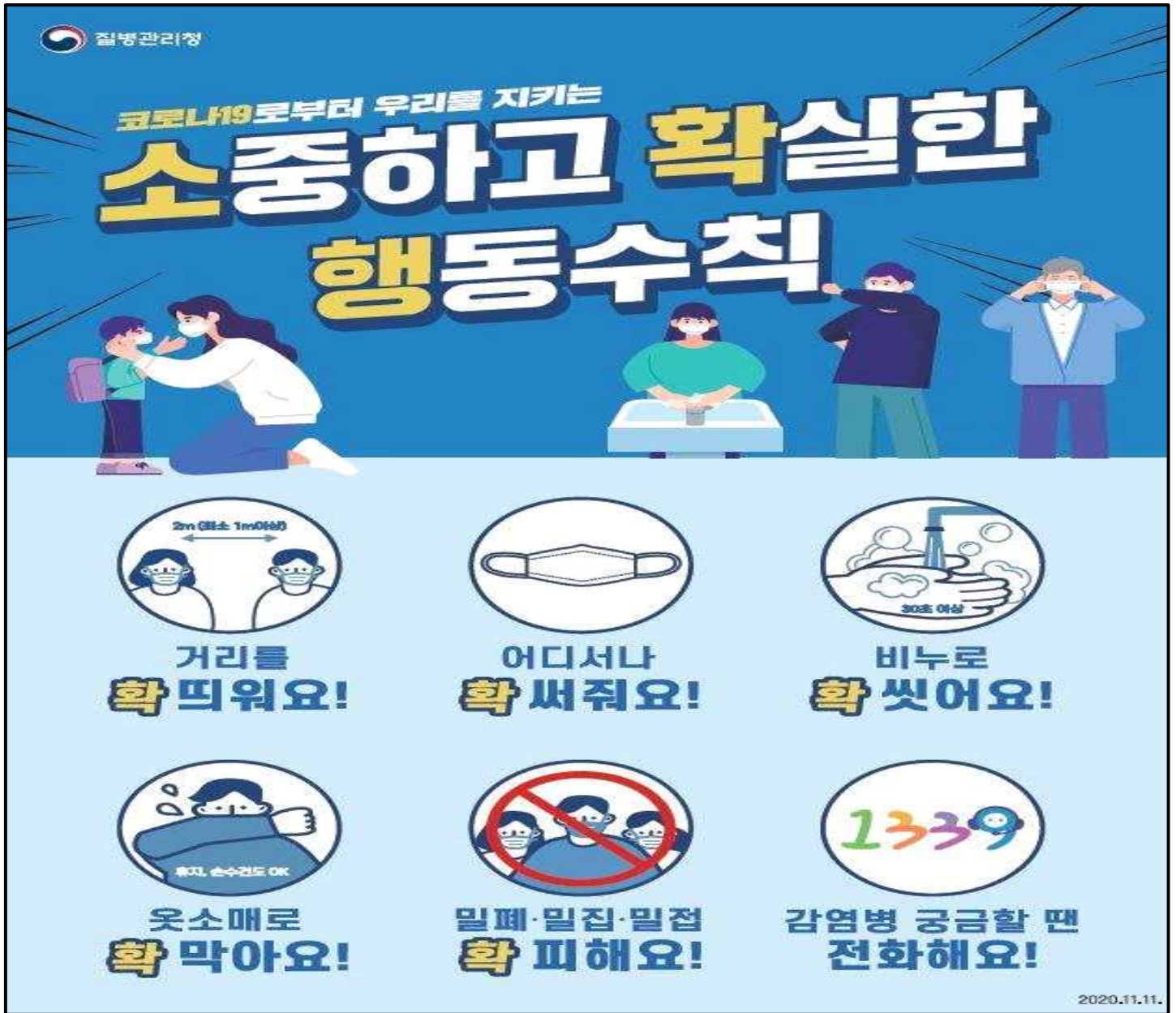
- ① 바깥 외출 금지
- ② 가능한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생활하기
- ③ 방문은 닫은 채 창문을 자주 열어 환기시키기
- ④ 식사는 혼자서 하기

- ☐ 등교중지 중인 학생의 가족은 다음의 생활수칙을 준수합니다.

- ① 등교중지 중인 학생의 건강상태(발열, 호흡기증상 등)를 매일 주의 깊게 관찰합니다.
- ② 등교중지 기간 동안 가족 또는 동거인은 최대한 등교중지 중인 학생과 접촉하지 않도록 합니다.
 - 특히, 노인, 임산부, 소아, 만성질환, 암 등 면역력이 저하된 분은 접촉을 금지합니다.

- 외부인의 방문도 제한합니다.

- ③ 등교중지 중인 학생과 독립된 공간에서 생활하시고, 공용으로 사용하는 공간은 자주 환기를 시킵니다.
- ④ 개인 물품(수건, 식기류 등)을 사용하도록 하며, 화장실, 세면대를 공용으로 사용한다면, 사용 후 소독(락스 등 가정용 소독제)하고 다른 사람이 사용하도록 합니다.



학부모 교육

장애인식 개선을 위한 학부모 교육

우리 학교에서는 장애로 인하여 특별한 교육이 필요하거나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을 위한 통합교육지원반(특수학급)이 있습니다. 지원반 학생들은 하루 2~4시간 정도 지원반에서 공부를 하고, 그 외 교과시간에는 통합학급(일반학급)에서 수업을 받거나 진로직업 관련한 실습활동을 합니다.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이 함께 공부하는, 이른바 통합교육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러한 통합교육을 통하여 장애학생은 비장애학생과 함께 학교생활을 하면서 사회성을 길러 나가게 되고, 비장애학생은 장애 학생과의 통합교육 경험을 통해서 장애를 가진 친구도 나와 다르지 않고 조금 불편할 뿐이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되며, 인간에 대한 존중과 타인을 배려하는 따뜻한 마음을 배워 나가게 될 것입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거울이라고 합니다. 부모님께서 장애인을 대하는 행동이나 생각이 그대로 아이들에게 전달되어 나타날 것입니다. 나와 다르다고 해서, 조금 부족하다고 해서 놀리거나 업신여기지 않고 따뜻한 마음으로 장애를 가진 친구와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갖도록 학부모님께서 지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특수교육대상학생을 다른 눈으로 보지 말고, 그들도 누군가의 사랑스럽고 소중한 자녀라는 사실을 알고 마음을 열면 좀 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 가정에서 자녀와 함께 볼 수 있는 장애이해 영화 🌸

 <p>말아톤 자폐스펙트럼장애가 있는 청년의 마라톤 도전기 실화</p>	 <p>맨발의 기봉이 엄마를 위해 달리는 지적장애인 실화</p>	 <p>블랙 듣지도 보지도 못하는 소녀에게 세상과 소통하게 해 준 선생님의 이야기</p>	 <p>미 투 다운증후군 장애인의 사랑이야기</p>
 <p>나의 왼발 뇌성마비 장애인이 화가가 된 실화</p>	 <p>아이 엠 샘 자신의 딸을 지키기 위한 지적장애인 아버지의 분투</p>	 <p>제8요일 다운증후군이 있는 조지와 우정을 쌓아가는 이야기</p>	 <p>언터처블 불의의 사고로 전신마비의 지체장애인이 된 남자와 무일푼 백수의 우정 이야기</p>
 <p>증인 자폐스펙트럼장애를 가진 소녀와 변호사의 특별한 만남을 그린 이야기</p>	 <p>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천재적인 두뇌와 자폐스펙트럼장애를 동시에 가진 변호사 이야기</p>	 <p>나의 특별한 형제 10여 년을 한 몸처럼 살아온 지체장애인과 지적장애인의 실화</p>	 <p>그것만이 내 세상 서번트 증후군이 있는 동생과 복싱선수인 형이 재회하며 만들어가는 이야기</p>